

내가 왜 떴게?

그대와 벚꽃길을 걸으리



강다니엘

●강다니엘, 벚꽃데이트 : 매년 벚꽃이 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차트, 스타투표 웹사이트 아이돌픽이 '같이 벚꽃데이트하고 싶은 아이돌은?'이란 제목으로 3월 25~31일 투표를 진행했다. 1위는? 그렇다. 강다니엘이다. 656만9700포인트를 얻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 태용이 획득한 224만8900포인트의 거의 세 배다. 3위는 하성운(194만500포인트), 4위는 JB(165만4600포인트)가 차지했다. 걸그룹 멤버 중에서는 보나가 유일하게(6위·67만9000포인트) 10위권 내에 들었다. 강다니엘과의 벚꽃데이트는 장소를 고를 필요가 없겠네. 그대와 같이 걷는 그 어느 곳이든 하늘에 선 벚꽃이 펼칠 휘날릴 것 같을 테니.

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니콜라스 케이지

●니콜라스 케이지, 결혼 취소 : “이 결혼 취소해주세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일본인 여성 에리카 코이케와 결혼했다가 4일 만에 혼인 무효신청서를 법원에 냈다고 한다. 니콜라스 케이지의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술에 취했고, 에리카가 결혼 제안을 했을 때 케이지는 충동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이다. 니콜라스 케이지의 네 번째 결혼은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듯. 참고로 세 번째 결혼 상대는 한국인 앨리스 김이었다. 거 케이지 형,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신세계 버전)

영원한 따거를 추모하며



당형덕과 장국영(오른쪽)

●장국영, 16주기 : 장국영 형님이 가신 지 16년이 되었다. 2003년 4월 1일, 홍콩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4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던 장국영. 전 세계인들은 그의 죽음을 만우절 거짓말이라 믿고 싶어 했다. 장국영의 16주기를 맞아 전 세계에 추모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그의 마지막 연인이었던 당형덕도 장국영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SNS에 올리며 그를 기억했다. 우리 마음속의 영원한 '따거' 장국영. 왕년의 대치동 장국영이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인비 제치고 LPGA 기아클래식 역전우승 | ‘박세리 골프대디’와 닮은 ‘하타오카 나사 스토리’

‘골프 마미’가 탄생시킨 ‘천재소녀 하타오카’

골프장서 일한 엄마 영향 11세 입문
미지의 세계 염원…딸 이름도 NASA

日 오픈 우승하자 딸 이끌고 미국으로
작년 LPGA 첫 해 2승 한국선수 위협
딸의 3승 순간, 직접 ‘축하의 물 세례’

대한민국 여자골프가 세계최강으로 자리를 잡은 이유는 많겠지만 ‘골프 대디’의 힘을 빼놓을 수 없다. 분신이었던 아버지 박준철 씨의 열성과 지도로 박세리는 한국인 골퍼 누구도 가지 못했던 성공의 길을 개척했다.

박세리의 성공사례를 본받은 많은 골프대디와 골퍼 맘이 뒤이어 등장하면서 한국 여자골프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육성시스템을 만들었다. 우리 여자 선수들은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을 알기에 골퍼에 ‘올인’한다. 어느 대회에 가더라도 연습장에서 끝까지 남아서 훈련하는 사람은 우리 선수다. 이들에게 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가족의 모든 것이 걸린 ‘패밀리 비즈니스’다. 당연히 다른 나라 선수보다 강한 멘탈을 가지고 기술도 앞설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에 자극을 받은 다른 나라 골퍼 선수의 부모들도 요즘에는 한국식 방법을 많이 따른다. ‘골프 한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배드 아비아라골프클럽(파72·6558야드)에서 1일(한국시간)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기아 클래식(총상금 180만 달러·약 20억 원)에서 박인비, 박성현, 고진영 등을 누르고 우승한 일본의 ‘천재소녀’ 하타오카 나사(20)도 그렇게 탄생했다. 3라운드 단독선두 박인비에게 1타 뒤진 채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나사는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타를 줄이며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해 1언더파에 그친 박인비를 제치고 정상상을 밟았다. 4개 대



일본 하타오카 나사(가운데)가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배드 아비아라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아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어머니 하타오카 히로미(오른쪽), 우에하라 아야코로부터 물세례를 받으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회 연속 우승을 노렸던 태극양자들은 박인비와 박성현, 고진영이 모두 15언더파 273타 공동 준우승을 차지했다.

딸의 이름을 미국항공우주국(NASA)으로 정할 만큼 하타오카의 부모는 꿈이 컸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세계로 딸이 갔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았다. 골프장에서 일하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딸은 11살에 처음 골프채를 잡았다. 중학교 때까지는 육상 200m 선수로 활동했다. 기초체력을 탄탄하게 한 뒤 골프전문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받았다. 박세리의 스토리와 비슷하다.

하타오카의 우상은 미야자토 아이. 작은 체구로 LPGA 투어 8승을 따냈던 일본 여자골프의 영웅이었다. 하타오카는 미야자토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꾸며 클럽을 휘둘렀

다. 또래들의 대회에서 많은 우승을 하며 영재 소리를 들었던 그는 2016년 제49회 일본여자오픈에서 4타차를 뒤집고 역전 우승했다. 당시 우승을 눈앞에 뒀던 선수들이 전인지와 신지애였다.

17세에 아마추어 선수로서는 처음이자 최연소 우승기록까지 세우며 혜성처럼 성인 무대에 등장한 하타오카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날아갔다. 좁은 일본보다는 세계를 상대로 도전하겠다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2017년 미국 진출 첫 해, 실패를 거듭했다. 시드를 날렸다. 하지만 다음해 다시 Q스쿨에 도전해 수석으로 통과했다. 이후 미국 무대에서 꾸준히 성적을 올려온 하타오카는 지난 시즌 2승을 거두며 우리 선수들을 위협

했다. 올해 기아 클래식에서도 마찬가지로 4라운드 초반부터 스코어를 줄이며 퍼트가 살아나지 않은 박인비를 압박한 끝에 역전우승을 거뒀다. 252야드의 짧은 파4 홀인 16번 홀에서 티샷이 물에 빠져 보기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완벽한 경기였다.

파5 15번 홀에서 샌드위치로 친 3번째 샷이 운 좋게 바운드 되면서 홀바로 옆에 멈춰 서며 탭인 버디가 된 장면이 하이라이트였다. 하타오카는 최종 라운드에서 4번 그린을 놓쳤지만 27개의 퍼트로 막아냈다. 반면 박인비는 32개의 퍼트를 했다. 그 차이가 우승과 공동 2위를 결정했다. 그의 어머니 하타오카 히로미는 이날도 그린 부근에서 딸의 LPGA투어 통산 3승째를 지켜봤다.

김종리 전문기자 marco@donga.com

도전의 아이콘 윤종신, 이번엔 영화제작자 변신

색다른 아이유 모습 담은 단편들
넷플릭스와 ‘페르소나’ 프로젝트
데뷔 30년… 끊임없는 변화 선도

가수 윤종신(50)의 도전은 끝이 없다.

본업인 가수 외에도 MC, 연예기획사 사장, 또 프로듀서로 1인 다역의 활약을 펼쳐온 그가 이번엔 콘텐츠 제작자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자축하기보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시선을 끈다.

여러 가지 시도 가운데 영화제작자로서 첫 도전이 단연 눈에 띈다.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와 손잡고 영화 ‘페르소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수 겸 연기자 아이유를 내세운 ‘페르소나’는 임필성, 이경미, 김종관, 전고운 등 네 명의 감독이 아이유를 각기 다른 시선으로 풀어낸 단편영화 시리즈다. 가수 이미지에 가려진 아이유의 색다른 모습을 담아내는 것으로, 오랜 준비 끝에 내놓은 콘텐츠가 짧은 시간에 성패가 갈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우기 위한 콘텐츠 제작자로서 윤종신의 욕심이기도 하다. 이를 시작으로 속편도 제작할 계획이다.

윤종신은 이를 위해 화사명을 미스틱엔터테인먼트에서 미스틱스토리로 최근 바꿨다. 단순한 연예기획사를 넘어 음악, 예능,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걸친 콘텐츠를 창작하겠다는 포부를 반영한 것이다.

음악프로듀서로서 시도도 멈추지 않는다. 올해 서른 살이 된 후배 가수들과 손잡고 30년 전 명곡을 선정해 노래를 발표했다. 장범준, 소녀시대 태연, 어반자카파와 함께 매달 리메이크곡을 선보인다. 7월에



윤종신(오른쪽)이 가수 겸 연기자 아이유를 내세운 영화 ‘페르소나’ 프로젝트를 제작했다. 사진은 3월 27일 관련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두 사람의 모습.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는 이들과 함께 ‘이제 서른’이라는 콘서트도 연다.

1989년 데뷔해 올해 30주년을 맞는 해에 이를 기념하는 단독 콘서트나 앨범을 발표하기보다는 서른 살 후배들과 협업을 택했다. 서른의 나이가 한 인생의 전환점이자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에서 이미 ‘월간 윤종신 3월호’의 신곡 ‘맛’을 통해 서른 살 청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윤종신은 “데뷔 30주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면서 “40주년을 맞이 전 하나의 계단에 선 창작자로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벌써 5번의 끝내기…‘불펜 약화’가 주범!

뒀문 열리는 KBO리그

작년 불론세이브 188번…매년 늘어
10개구단 중 불펜이 확실한 팀 없어
3~4점쯤은 1이닝에도 쉽게 뒤집혀

이제 팀당 8경기를 했을 뿐이다. 이렇다 할 표본이 쌓이지 않았으니 누적 기록의 예측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끝내기’가 예년보다 눈에 띄게 잦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홈팬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짜릿한 순간이지만, 리그 전체적으로는 ‘뒀문’이 열려있다는 점에서는 결코 유쾌할 수 없는 지표다.

●약화된 ‘타고투저’ 속 다섯 번의 끝내기

3월 23일 개막한 KBO리그는 31일까지 팀당 8경기씩 치렀다. 우천 등 경기 취소 없이 총 40경기가 치러졌고, 끝내기는 5차례 나왔다. 26일 창원 KT 위즈-NC 다이노스전 모창민의 끝내기 홈런이 시작이었다. 이틀남인 27일에는 인천 LG 트윈스-SK 와이번스전(최정), 키움 히어로즈-두산 베어스전(정수빈) 등 두 곳에서 끝내기가 나왔다. 28일 LG-SK전에서는 이재원이 끝내기 아치를 그렸다. 이를 연속 끝내기 패배를 당했던 LG는 31일 잠실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유강남의 끝내기 안타로 만회에 성공했다.

KBO리그에서 끝내기 안타가 가장 많이 나온 건 2015년, 2018년의 각 59회다. 2015년 KT의 1군 합류로 10개 구단 체제가 정착된 이래 매년 50회 이상의 끝내기가 나왔다. 10년 전인 2009년까지만 해도 리그 전체에서 끝내기는 34회에 불과했

다. 경기수가 늘어난 만큼 끝내기의 증가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올해의 수치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KBO리그는 스트라이크존 정상화와 공인구 반발계수 조정으로 기형적 타구 투저 완화에 몰두했다. 실제로 8경기에서 리그 평균자책점이 소폭 하락했고, 홈런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타고’가 약화되는 분위기지만 끝내기는 늘고 있는 셈이다.

●아홉 번의 불론세이브, 끝내기 시대 오나

지난해 팀당 8경기씩 치른 시점에 끝내는 총 두 차례뿐이었다. 시즌 초반에는 타자들의 감이 올라오지 않고, 투수들의 힘이 생생하다. 혹서기에 접어들면서 불펜투수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끝내기도 자연스레 늘어난다. 그러나 올해는 투고 타저의 시즌 초반에도 끝내기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리그 전반의 불펜 약화와 맞닿아 있는 현상이다. 뒀문이 열리면 역전이나 뒤집기, 끝내기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2015년 이후 KBO리그 불론세이브는 해마다 신기록을 써왔다. 지난해에는 무려 188번의 불론세이브가 나왔다. 올해도 불론세이브는 흔한 광경이다. 31일까지 리그 전체 불론세이브는 총 9개다. 경기당 평균은 지난해보다 덜한 편이지만, 매년 여름이면 불론세이브 수치는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시즌 초반부터 뒀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염려해야한다. 수도권 A팀 투수코치는 “10개 구단 중 불펜이 강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팀이 없다. 3~4점차는 1이닝에도 뒤집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다”며 “경기 끝까지 반전이 거듭될 것”이라고 점쳤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